

미국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 재난컬렉션 수집에 관한 연구*

A study of Establishment and Acquisition for Disaster Collections on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

정혜지(Jung, Hye-ji)** · 이승휘(Lee, Seung Hwi)***

1. 머리말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선행연구
2. 사회재난의 정의와 재난기록관리의 중요성
 - 1) 사회재난의 정의
 - 2) 재난기록관리의 중요성
3.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
 - 1) 남부 맨해튼 재건사업과 설립 주체
 - 2) 시민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 3) 기관 존속 보장을 위한 9/11 Memorial Act의 제정
4. 9/11 메모리얼의 기록관리 정책과 컬렉션 구성
 - 1) 미션과 컬렉션 수집 범위
 - 2) 9/11 메모리얼 컬렉션의 유형과 특징
5.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 수집 활동
 - 1) 수집 권한과 평가
 - 2) 컬렉션의 수집과 등록
 - 3) 이용자 중심 수집을 위한 온라인 레지스트리
6. 9/11 메모리얼 설립과 수집에서의 시사점
7. 맺음말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투고일 : 2018년 1월 3일 ■ 최종심사일 : 2018년 1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8년 1월 22일

〈초록〉

미국 뉴욕에 자리한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지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6년 2월 26일 뉴욕 WTC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관리하는 기관이다. 설립 당시부터 시민참여 프로그램에서 추모시설의 필요성과 세부적인 특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자발적인 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법의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이 보장된 기관이다.

한편 전 세계에 분포된 불특정 다수의 생산자에게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구입·오프라인 기증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웹사이트 이용자를 중심으로 한 수집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재난기록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민여론과 정부와의 공정한 논의 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 관리는 추모, 기억 보존, 교육, 진상규명, 학제적 정보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난 이후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사회재난, 9/11테러, 재난기록관리, 9/11 메모리얼, 재난기록, 재난컬렉션, 재난기록관리기관, 사회재난 아카이브

〈Abstract〉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is the institution that collects, assesses, arranges, uses, exhibits, and preserves collections related to the terror attack on September 11, 2001 (9/11), and the explosion incident at the World Trade Center (WTC) on February 26, 1996. After the 9/11 incident, various groups, including the LMDC and the PANYNJ, have participa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is organization. Since its initial establishment, the necessity for memorial institutions and detailed characteristics had been discussed in meetings to gather citizens' opinions. Furthermore, the enactment of the 9/11 Memorial Act has

secured the institution's stable operation and management.

To properly manage disaster-related collections, a just agreement among the citizens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made to arrive at rational decision-making. This institution can provide answers regarding those ways. Moreover, managing disaster-related collections should be discussed as an important means of remembering, preserving memories, educating, revealing the truth, and preparing academic information and sources. As a result, collaborative governance in records management after a disaster is expected.

Keywords : social disaster, disaster collection, disaster collection management, 9/11 Memorial, social disaster archives

1. 머리말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우리는 기록을 통해 사회재난을 재현할 수 있다. 재난의 진상규명을 위한 증거를 수집하여 이미 일어난 재난을 진단할 수 있으며, 재난 속에서 형성된 수많은 공동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재난기록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참사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필수적인 활동이며, 앞으로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활용할 정보자원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재난 관련 기록물은 다양한 출처와 유형을 가지고 수집되므로, 잘 정립된 기록관리 정책 하에 기록물을 수집하고 정리해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이 설립되어야 한다. 또 재난에 대한 기록물을 다루는 기관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수동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추모 공간, 기록관리 공간, 전

시와 교육의 장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미국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 Museum(이하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테러 및 1993년 WTC(Would Trade Center) 폭탄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취급하며,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이자 추모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 한국사회에서 재난에 대한 경고와 진단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¹⁾,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삼풍백화점 붕괴사건, 대구지하철화재참사, 세월호참사 등에서 우리는 무고한 생명을 잃어 왔다.

9/11 메모리얼은 민주적 방식으로 설립된 재난기록관리기관으로서 시민공동체, 영리 기관, 정부 기관이 적극적으로 설립과 수집에 참여하는 기관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사회구조 상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 운영, 관리상 측면을 연구함으로써, 한국의 사회재난 기록물을 관리할 방안을 제시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과 수집방식을 알아보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먼저 사회재난을 이해하고 재난컬렉션의 기록학적 의미와 관리의 필요성을 정리했다. 그리고 9/11 메모리얼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협력적 거버넌스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시민여론 수렴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법적 장치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한편 9/11 테러와 관련한 다양한 출처를 가진 컬렉션의 형태는 어떠한지 등, 9/11 메모리얼의 온라인 컬렉션 수집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1) 장경섭(1997), 이재열(2003; 2005), 구도완 외(2003), 전미희(2006) 등 사회재난 관련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왔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미국의 9/11 메모리얼은 2001년 9월 11일 미국 뉴욕시 남부 맨해튼 일대, 미국 펜타곤, Flight 93기에 가해진 테러에 관한 컬렉션을 수집, 보존, 전시, 서비스하는 기관으로, 추모공원과 기념관으로 이루어져 각각 2011년과 2014년에 개관했다. 9/11 메모리얼은 이 재난컬렉션을 전시, 관리하는 기관이자 추모 공간이다. 설립과정에 다양한 주체가 얽혀 있었고 시민과 여론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적 의미가 깊다.

이 연구는 특정 사회재난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지니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9/11 메모리얼로부터 찾고자 했다. 따라서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과 컬렉션 수집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했다.

한편 9/11 테러에 대한 정치적 시각은 가능한 한 배제하고자 하였다. 박진빈(2008)은 9/11 메모리얼에 “미국의 정체성에 대한 담론과 상업자본의 개입에 의한 기념사업의 의도가 녹아 있다”(박진빈 2008, 121)라고 주장한 바 있다. 9/11 메모리얼이 이른바 세계패권국으로서의 정체성 중 하나로 기능한다는 논의에 대해, 과연 이 기념공간이 과연 미국의 정치적 이념과 자본주의적 구조로부터 자유롭냐는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문헌과 웹사이트를 조사하였다. 9/11 메모리얼과 관련한 국내 관련 문헌은 대부분 건축학, 사회학 등의 분야이며, 기록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는 하나의 사례로서 구술·수집 분야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9/11 메모리얼 웹사이트(www.911memorial.org)와 9/11 메모리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Explore 9/11”을 통해 직접적인 정보 조사를 진행했다. 9/11 메모리얼의 설립 주체와 여론 수렴 주체가 다양했으므로 관련 기관의 웹사이트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다. 9/11 메모리얼의 진행 경과에 관련해서는 관련 해외기사·보고서 자료를 참고했으며, 타임라

인별로 의사결정과정 등이 이루어진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세부적인 내용 정보를 획득하였다. 기록관리 활동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관리정책(Collections Management Policy)』을 토대로 작성되었다.

3) 선행연구

2010년대 초반 추모공원과 기념관이 각각 개관하면서 국내에서도 9/11 메모리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다만 설립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고 구체적인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9/11 메모리얼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관리학 논문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회사학 분야에서는 박진빈(2008)이 9/11 테러 발생 후 미국 내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규정짓고 이해해 왔는지, 또 그 기념문화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지를 분석했다. 건축학 분야 연구로는 김승범(2012)의 박사학위 논문이 있다. 그는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관찰되는 토론장과 작업장과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미국 뉴욕의 그라운드 제로(Ground Zero) 재건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기록관리 분야에서는 재난기록 관리방안이나 기록화 등 재난 관련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례로 소개된 경우가 많다. 송주형(2015)은 재난 사건을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구술채록을 강조하면서, 일례로 9/11메모리얼 웹사이트에서 진행되는 구술 수집프로그램과 컬럼비아 대학 등지에서 진행한 9/11 구술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2014)는 오메카(Omeka) 프로그램을 활용해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사건을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현하면서, 이에 관련된 외국 사례로 911디지털 아카이브(The September 11 Digital Archives)를 소개했다. 이 사이트는 미국 사회사 프로젝트(American Social History Project)를 추진하면서 일차 구축된 것으로, 9/11 메모리얼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국내의 재난 관련 기록관리 연구는 홍영의(2015), 김진성(2015), 안병우(2015) 외 다수로, 대부분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기록화의 의미와 그 과정 등을 전개했다. 그 외 국내외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록물에 관한 기록학적 연구로 이미옥(2014), 정영란(2003) 등이 있다.

이미옥(2014)은 재난기록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관리·활용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외 현황 및 사례분석을 통한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기록의 단계별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이 연구에서 동일본 대지진 아카이브(데이지), 로커비 항공 재난 아카이브 등 재난아카이브에 대한 기록관리 현황을 분석, 시사점을 제시하고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기록 관리현황을 분석해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재난기록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며 업무 자체에서 재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재난기록의 기록학적 관리를 위한 수집 및 분류기술 전략을 수립해 재난기록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정영란(2003)은 집합적기억 개념을 토대로 미국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수집물 유형과 컬렉션별 특성을 분석했다. 이 연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홀로코스트’라는 집합적기억을 관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홀로코스트 기념관의 기본활동에서 가장 중점적인 비중은 수집프로그램으로, 이 프로그램이 홀로코스트라는 집합적기억에 관한 거대한 퍼즐을 짜맞추기 위해 필요한 퍼즐조각들을 찾아내는 과정으로 집약된다고 하였다.

9/11 메모리얼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1) 기록학 외 분야에서의 9/11 메모리얼에 대한 연구, 2) 기록학 분야에서의 사례연구, 3) 국내외 재난기록관리 관련 연구로 나눌 수 있었다. 국내 기록학 분야에서 9/11 메모리얼의 운영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다룬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 의의, 컬렉션 수집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 설립과정 및 관련 법 제정, 컬렉션 구성과 수집 영역을 분석하고, 사회재난을 주

제로 한 기록물 관리기관의 운영과 수집에 관한 정보들을 집약하여 한국사 회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사회재난의 정의와 재난기록관리의 중요성

1) 사회재난의 정의

재난은 일반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의 부주의, 비정상적 환경과 사회 시스템, 테러, 전쟁 등 특정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인재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가목 자연재난, 나목 사회재난을 말하고 있다. 이 중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²⁾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법률 제13440호). 나목 인적재난과 다목 사회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으로 2013년 8월 6일에 ‘사회재난’으로 통합되었다.

기록학적 관점에서 재난은 사건이 일어난 후 결과통제 여부에 따라 나뉘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5., 2014.11.1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인용날짜: 2016.04.11.

다. 『기록관리 비상계획』에서는 비상사태(emergency)를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예상밖의 사태”로, 재난(disaster)을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예상밖의 사건”으로 정의했다. 예를 들어, 초기에 차단된 누수는 비상사태이다. 그러나 건물 전체에 걸친 범람을 초래하는 누수는 재난이 된다. 비상사태와 재난은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인 것은 지진, 허리케인, 태풍, 싸이클론, 화산분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으로부터 발생한다. 인위적인 것은 누수, 폭발, 테러행위, 전쟁을 포함한다(Cook 2002, 14-15). 즉 기록관리 영역에서도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사람의 부주의 또는 의도적인 행위에 의한 사건·사고를 모두 재난에 포함하고 있다.

사회재난은 사고, 범죄행위, 테러행위, 전쟁 등을 포함한다. 사고는 어떤 시설 및 모든 인간사회에서의 기술적인 오류로 인한 재난으로, 인간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와 고의적으로 자행되는 범죄성 재해 그리고 산업의 발달에 따라 부수되는 공해 피해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의 재난을 총칭한다. 한편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죄행위로 공공테러(공공파괴, 정보통신 시설 테러), 연성테러(전염성 바이러스 테러), 컴퓨터 바이러스 테러, 괴질(사람을 포함한 동식물에 대한), 불법 중 시위 등도 사회재난에 포함된다(오국성 2012, 7). 따라서 국가의 안전 시스템 미비로 불거진 참사 역시 사회재난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재난기록관리의 중요성

프랑스 역사가 피에르 노라(Pierre Nora)는 “현대의 기억은 그 흔적의 물질성, 그 자취의 구체성, 기록하기의 즉각성, 그 이미지의 가시성에 전적으로 의존한다.”고 말했다(Jimerson 2016, 302). 그 중에서도 재난은 다양한 형태로 관련된 많은 이들의 일상적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역사적 기억으로 기록화의 대상은 무척이나 광범위하다(송주형 2015, 160).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재난기록은 그 유형과 매체, 생산자와 출처, 생산 시기가 천

차만별이다. 따라서 재난기록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자, 가해자, 관련 조직, 설립 주체, 정부, 공공영역, 민간영역, 미디어 영역 등 생산 출처가 다양하다. 둘째, 재난의 원인(재난 이전), 재난의 전개과정, 사후처리 과정(재난 이후) 등 일련의 사건전개의 흐름에 따라 증거적 성격을 지닌 기록이 생산된다. 셋째, 생산 출처의 다양성과 재난 특성상 미디어와 현장에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물이 생산된다. 넷째, 재난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추모기록이 존재한다. 다섯째, 여러 출처와 시기에서 생산되어 산재된 기록물을 기록화하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여섯째, 재난의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대다수이므로, 누구나 접근·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을 갖는다.³⁾ 일곱째, 재난기록은 일상에서 살펴볼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새로운 인간사회 흐름의 양상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가 된다. 그러므로 ‘재난기록’이란 “재난의 이전, 전개과정, 이후에 걸쳐 다양한 생산자에 의해 다양한 유형으로 생산된, 해당 재난에 관한 증거가치를 지닌 기록 정보”를 말한다.

재난기록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재난이 일어난 과정의 경험과 기억을 전승함으로써 좁게는 사건의 진상규명 활동과 적절한 배·보상 및 처벌을, 넓게는 교육적·학문적 활용가치를 지니고 재난 이전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재난기록관리기관은 사건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 공간이라는 상징성과 존엄성을 지닌 공간이다. 우리는 재난기록관리기관에서 기록물을 지속적이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책임조직의 설명책임성을 보장하고 교육적·학문적 측면에서 활용하여 궁극적으로는 참사를 예방하고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3) 재난을 경험한 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공적 영역에서 생산된 공공기록과는 차이가 있다.

3.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

1) 남부 맨해튼 재건사업과 설립 주체

9/11테러 이후 약 16에이커(약 64,750m²) 넓이의 맨해튼 남부 전체가 수습되면서, 그라운드 제로를 중심으로 재건사업이 시작되었다. 설립에 참여한 주체는 크게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이하 LMDC),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 이하 뉴욕 뉴저지 항만청), Silvestein Properties(이하 실버스타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9/11 메모리얼 재단, 재건사업에 참여한 수많은 건축회사와 건축가들도 설립 주체에 포함된다.

9/11 테러 이후 설립 주체들은 남부 맨해튼 재건사업 계획 속에 9/11 메모리얼을 포함했다. 9/11 메모리얼은 단독으로 설립논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무공간과 교통환승센터 등 남부 맨해튼 전체를 아우르는 재건사업에 속했다. LMDC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이 공동으로 9/11 메모리얼의 건설을 진행했고, 현재는 2004년에 출범한 9/11 메모리얼 재단이 자금관리와 운영을 맡고 있다.

(1) 부지 소유권 - 뉴욕 뉴저지 항만청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뉴욕주의 주요 수송 체계와 무역 자산을 건설, 운영, 유지하는 공공기관이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6에이커 규모의 WTC부지를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제1WTC에 본부를 두고 있다(PANYNJ 2016.03.21.)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973년 WTC를 건립하여 2001년 7월까지 직접 운영하다가, 실버스타인에 매월 1천만 달러의 임대료를 조건으로 건물 전체를 99년 동안 임대하였다. 남부 맨해튼의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9/11 테러 이후 재건사업의 주체로 활동한다.

(2) 재건사업 공사 - LMDC

LMDC는 9/11 테러의 여파로 남은 남부 맨해튼의 재건과 재활을 계획 및 조직하기 위해 설립된 공사(公社)로, 전 뉴욕 주지사 파타키(George E. Pataki)와 전 뉴욕 시장 줄리아니(Rudolph W. L. Giuliani)에 의해서 2001년 11월 29일 창립되었다(LMDC 2016.03.21.).

LMDC는 9/11 메모리얼 건축 디자인을 맡아 2003년에 국제현상설계공모전을 주최했다. 2004년 1월에 LMDC는 이스라엘 출신 건축가 마이클 아라드(Michael Arad)의 “부재의 반영(Reflecting Absence)”이 채택되었음을 발표했다.(9/11 Memorial 2016.02.25.) 한편 LMDC는 대중의 여론 수렴을 위한 포럼인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를 후원하고,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함께 직접 대중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3) 9/11 메모리얼 재단

The National September 11 Memorial and Museum at the World Trade Center Foundation, Inc.,(이하 9/11 메모리얼 재단)은 2004년 12월 1일 출범한 남부 맨해튼에 본부를 둔 비영리 법인이다. 2016년 3월 현재 이사회 인원은 5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컬렉션 활동은 유대계 박물관 큐레이터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앨리스 그린왈드(Alice Greenwald)가 2006년부터 지휘하고 있다(9/11 Memorial 2016.04.17.).

재단은 초기에 각각 건물에 대한 모금을 진행하고, 공사 관리 또한 맡게 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에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공사를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게 일임하고 디자인 관리와 공사비 모금, 그리고 개관 이후의 운영 및 자금조달을 맡게 되었다(김승범 2012, 218).

9/11 메모리얼은 시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설립되어야 할 필수적인

기관으로 언급되었고, 이에 따라 추모시설 관련 디자인 안과 워크숍 등이 진행되었다. 2005년 9/11 메모리얼 재단이 설립되기 전까지는 뉴욕 뉴저지 향만칭-LMDC-실버스타인 구도가 메모리얼 설립 활동을 이끌어 갔으나 9/11 메모리얼 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는 LMDC와 9/11 메모리얼 재단을 중심으로 건설이 진행되었다.

2) 시민참여와 의견수렴 과정

남부 맨해튼 재건에 관한 이해관계 조율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통해 추모 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다양한 형태의 시민모임은 안전과 현 상황에 대한 시민 의견을 대토론회와 웹사이트를 통해 취합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1) 리스닝투더시티(Listening to the City)

리스닝투더시티는 2002년 2월 7일, 2002년 7월 20일·22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된 여론 수렴을 위한 포럼으로, “남부 맨해튼의 새롭고 명확한 비전과 9/11 테러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모인 자리”(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이하 뉴욕재건시민연합) 2002, 2)라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2002년 2월 7일 뉴욕 도심에서 시민대표와 공무원들을 포함한 6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제1차 리스닝투더시티 포럼에 참석했다. 제2차 리스닝투더시티는 2002년 7월 재비즈 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뉴욕재건시민연합이 조직하고 LMDC가 후원했다(Hajer 2005, 456).

제1차 리스닝투더시티 보고서에 따르면 “추모시설은 전반적인 상황에 통합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가장 필수적인 비전 요소”로 약 15%의 투표율을 얻었다. 또한 “가장 발생할 가능성이 큰 비전 요소”로 추모시설이 30%의 투표율을 얻어(뉴욕재건시민연합 2002, 4-5), 참석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

기는 요소 중 하나로 추모시설이 거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리스닝투더시티는 약 5,000여 명이 각자의 의견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고 취합한 대규모 행사였다. 개방적이고 투명한 참여 프로세스를 수행했다는 측면에서 테러 이후 문제에 대한 대중의 참여 의지를 보여준 극적인 발판이 되었다고 평가받았다(Hajer 2005, 457). 이 포럼을 계기로 이전의 6개 기획안은 전면 무산되었다.

(2) LMDC ·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대규모 공청회

LMDC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2002년 5월 23일과 2003년 1월 13일과 14일에 걸쳐 페이스 대학(Pace University)에서 대규모 공청회를 개최했다. 가장 큰 쟁점은 추모시설로, 유족들은 16에이커에 이르는 ‘그라운드 제로’는 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를 낳은 장소인 만큼 추모시설이 재개발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반면 세계 경제의 중심부로서 남부 맨해튼의 위치와 역할, 게다가 110층짜리 쌍둥이 빌딩과 주변 건물들의 붕괴로 사라진 1,300만 평방피트 규모의 사무실 공간 부족을 우려한 사람들은 대형 오피스 건물의 신축을 지지하고 있었다(장래준 2002). 여기서 높은 타워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형태와 기능을 갖춘 추모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Wyatt 2002). 2003년 1월 13일과 14일에는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제2차 공청회가 진행되었고 뉴욕 전역에서 생중계되었다. LMDC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13일 남부 맨해튼 지역 개발을 위한 9개의 안을 제시했다. 14일 공청회에서는 다음 주에 공개될 추모시설의 성명문 초안과 프로그램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LMDC 2016.03.29).

이 공청회에서는 추모시설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고, 설립 주체가 마련한 추모시설 성명문 및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두 차례에 걸친 LMDC · 뉴욕 뉴저지 항만청 공청회로 9/11 테러 추모시설에 대한 윤곽이 형성되었다.

(3) 이매진뉴욕(Imagine New York) 메모리얼 워크숍

이매진뉴욕은 뉴욕 내 여러 단체가 후원한 재건사업 워크숍으로, 이매진뉴욕Ⅱ와 Ⅲ에서 추모시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02년 12월 개최된 이매진뉴욕Ⅱ: 시민의 응답(The People's Response)은 대중에게 WTC 부지에 대한 9개의 혁신 디자인⁴⁾을 학습하고 평가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03년 1월 초에는 3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워크숍에 참여했고, 이매진뉴욕 웹사이트에는 약 5,000개의 코멘트가 등록되었다. 이 결과는 재건사업 계획에 대한 여론의 피드백으로서 LMDC가 발행한 보고서에 요약되어 수렴되었다(Imagine New York 2003, 1).

이매진뉴욕Ⅲ는 9/11 메모리얼 설계 디자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2003년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되었으며, LMDC가 2003년 4월에 개최한 국제현상설계공모전의 8개 기획안에 대한 여론이 수렴되는 과정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LMDC가 선정한 8개의 기획안이 이매진뉴욕 워크숍 참가자들의 기대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했으나, 각각 기획안에서 긍정적인 요소를 찾아 이에 대해 활발히 토론이 이루어졌다. 특히 추모시설의 추상적 상징성을 반영하자는 의견과 실용적 건물로 기능할 것을 요구하는 참가자들의 의견대립이 첨예했다(Imagine New York 2003, 14). 추모시설의 상징성에 대한 측면에서도 형태와 구조에 대한 의견대립이 존재했다. 이는 추모시설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의견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며, 설립 주체가 간과한 다양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좋은 원천이 된다. 이매진뉴욕은 워크숍 보고서를 작성하여 LMDC에 제출했으며, 대중의 다양한 반응에 따라 설계개념과 요소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4) 2002년 LMDC에서 공개한 9개의 남부 맨해튼 지역 디자인 계획안으로, 언론에서의 혹평과 리스닝투더시티, 이매진뉴욕 등 시민 의견 수렴과정에서의 거센 비난으로 무산되었다. 이후 9/11 메모리얼의 건축 디자인은 LMDC 현상설계공모전에서 당선된 마이클 아라드의 기획안을 기본으로 했다.

리스닝투더시티, LMDC의 대규모 공청회, 이매진뉴욕Ⅲ는 재난 이후 남부 맨해튼의 재건을 위해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한 이벤트로서 민주적 협의와 의견제시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다만 추모시설의 의미, 건축 디자인을 통한 추모비적 요소에 대한 여론의 의견을 취합하기는 했으나, 추모전시와 교육시설을 위한 역할이 강조되었을 뿐 아카이브 보존소로서의 기념관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3) 기관 존속 보장을 위한 9/11 Memorial Act의 제정

2016년 2월 9일 미국 하원 의회에서 H.R. 3036(House of Representatives 3036)이 통과되었다. the National 9/11 Memorial at World Trade Center Act(약칭 9/11 Memorial Act, 이하 Memorial Act)은 2015년 2월 1일 하원의원 톰 맥아더(Tom McArthur)에 의해 상정되었다. H.R. 3036은 9/11 메모리얼을 국립 추모공원으로 적용하는 법안이자, 매년 내무부로부터 기관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단일 경쟁 보조금(competitive grants)을 따낼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다(House Republicans 2016.03.02.). 재단 대표 대니얼스는 공식 성명문에서 “연방 정부가 9/11 메모리얼 플라자를 국립으로 인정한 것은 미국과 세계를 위한 기억과 명예의 주요 공간으로서 보존될 것을 보장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9/11 Memorial 2016.02.20.). 즉 9/11 메모리얼을 연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인정함에 따라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의회 예산국에서는 이 법안에 의한 지원금 재정이 매년 총 2,500만 달러일 것으로 추산했다(House Republicans 2016.03.02.).

Memorial Act는 제1절 약칭, 제2절 정의, 제3절 메모리얼의 지정, 제4절 확정된 메모리얼에 대한 경쟁 보조금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에서 말하는 기관(entity)은 501(c)(3)⁵⁾로 분류된 9/11 메모리얼로, 제4절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9/11 메모리얼의 특징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제3절에서는 9/11 메모리얼을 국립 메모리얼로 지정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절에서는 단일 경쟁 보조금의 지급 조건, 효력, 기준, 소멸시효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9/11 메모리얼의 운영과 유지를 위한 단일 보조금을 매년 지급하도록 했다.

Memorial Act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은 국가가 해당 추모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Memorial Act를 통해 9/11 메모리얼을 법률상 국립기관(national)으로 지정하고 매년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9/11 메모리얼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그리고 기관 운영에 가장 중요한 예산을 정기적으로 확보할 근거를 마련하였다. Memorial Act는 재난 관련 기관의 기능에 대한 안정적이고 확실한 운영을 보장하여 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록 관리와 활용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9/11 메모리얼의 기록관리 정책과 컬렉션 구성

1) 미션과 컬렉션 수집 범위

9/11 테러와 같은 사회재난에서 비롯한 기록관리기관은 그 목적을 재난의 경험과 인간 존엄성에 두어야 하며 나아가 재난기록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 9/11 메모리얼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나아가 이 기억을 공유하는 활동을 하기 위한 미션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재난기록관리기관의 미션은 희생자 추모와 재난 기억의 장기보존이라는 특징이 있다. 9/11 메모리얼의 미션은 다음과 같다.

5) 501(c)(3)은 비영리 조직의 연방 세금 면제를 받는 미국 내국세입법의 일부로, 특히 공공 자선단체, 개인 재단 또는 개인 운영재단을 포함하고 있다. (Foundation Group 2016, 03, 11.)

1. 1993년과 2001년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살해된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을 기억하고 명예롭게 한다.
2. 9/11 메모리얼은 비극적인 상실감이 반영된 신성한 공간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인내, 타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의 용기, 9/11 피해자들을 도운 사람들의 열정을 기억하는 공간이다.
3. 기억되는 삶과 영혼은 영원한 불빛이 되어 삶에 대한 존중으로 재확인되고, 자유를 보전하려는 다짐을 강화하며, 증오·무지·편협의 종결을 고무시키는 공간이다(9/11 Memorial 2016.02.03.).

9/11 메모리얼의 미션은 희생자들의 삶을 추모하고 기리는 것으로 시작하여, 다양한 공동체들이 겪은 테러리즘의 영향,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과 근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책임을 상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9/11 Memorial 2016.02.03.). 9/11 메모리얼은 단순한 추모를 넘어서 컬렉션 수집, 교육, 콘텐츠 제공 등의 다각적인 서비스를 함으로써, 미션에서 제시한 목적을 달성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미션에 따라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해당 활동들을 찾아볼 수 있다.(<표 1>⁶⁾ 참조)

기록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미션과 수집/서비스 활동을 각각 연결할 수 있다. 미션 1은 기록관리 측면에서 피해자 개인의 전기 기록물 수집 활동 및 추모기록물 수집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다. 개인의 전기 기록을 수집하는 행위는 9/11 이전까지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았던 희생자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그들의 개인적 가치를 높이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추모기록은 그 사회가 재난에 대해 어떤 감정적 반응을 보였는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공동체의 활동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므로 생산 당시 원질서를 존중해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모 경험을 구술사로 남김으로써 다양한 시각으로 재난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

6) 9/11 메모리얼의 기록관리 활동과 미션에서 연관성을 찾아 직접 도식화했다.

미션 2는 재난에 얽힌 피해자와 관계자들이 지니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기록관리 활동으로 구술사 채록을 들 수 있다. 9/11 메모리얼의 구술사 채록 활동은 방대하고 다양한 형태의 구술채록과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9/11 메모리얼에서는 전화로 구술사를 남길 수 있는 Call to Remember Archive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구술 기억은 기념관에서 전시와 다른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구술대상이 다양하며 9/11 테러를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채록하는 구술사의 범위가 추모에 한정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채록으로 내용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

미션 3은 9/11 테러와 같은 비극적 사건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존엄성을 찾고, 이를 보전하자는 데에 의미가 있다. 이를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본 기록관리 활동으로는 사건에 대한 교육, 시민들에 대한 각종 공공 프로그램 개최, 기록물을 이용한 콘텐츠 제작 및 서비스를 이야기할 수 있다. 9/11 메모리얼에는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서비스 등 온라인에서의 콘텐츠 정보제공 서비스,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공공토론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컬렉션이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표 1〉 9/11 메모리얼 미션의 의미와 기록관리 활동

1.	(biographies)	
2.	(oral Histories)	Call to Remember Archive
3.	,	Talking to Children about 9/11 Interactive Timeline 9/11

위와 같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 9/11 메모리얼은 2013년 『컬렉션관리정책』을 제작했다. 이 정책은 주로 미션 1과 2에 따라, 컬렉션은 궁극적으로 “인간 존엄성의 승리를 증명하고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인 가치를 향해 변함 없이 전념”(9/11 Memorial 2013, 2)함을 위해 수집된다. 정책성명문에 따르면 기념관은 2001년 9월 11일 테러와 1993년 WTC 폭탄테러와 관련한 정보의 관문이 될 것이며, 본디지털(born-digital) 및 디지털화된(digitized) 자료 등으로부터 유효하고 광범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추모, 교육, 전시, 공공 자원, 연구에 가치를 부여할 것을 목적으로 했다(9/11 Memorial 2013, 1).

컬렉션은 메모리얼 자문위원회의 권고로 요약된 “내용 기준(content criteria)”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2004년 여론의 건의로 제시되었던 이러한 기본적인 권고 사항은 주요자료와 박물관(artifact)을 중심으로 한 전시, 다층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혼합된 문서로 구성되었다. 자문위원회는 자료들이 건물, 물품, 구술사, 예술 활동, 건축적 요소, 비디오·오디오, 사진, 광고, 기념품, 상징물 등을 무제한 포함하도록 했다(9/11 Memorial 2013, 3). 자문위원회의 컬렉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수집·기증된 각 참사의 모든 희생자에 대한 개인사
- 1993년 2월 26일 WTC 폭탄테러(희생자·피난·대응 포함)
- 사실에 입각한 테러리스트들의 테러 준비 방식과 의도에 대한 설명
- 남부 맨해튼, WTC, 쌍둥이빌딩의 중요성·의미를 지닌 역사적 맥락
- 21세기의 전환점에서 역사적 흐름으로서의 WTC “일상” 및 인간사회와 WTC 복합단지의 물리적 성격
- 2001년 테러의 지역적, 국가적, 세계적인 변화 및 전례 없는 환경과 영향(지역·국가·세계 단위로 발생한 폭넓고 다양한 반응)
- 복구와 자원봉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 및 테러 당시 남부 맨해튼 지역의 피난과 구조 및 복구 효과
- 9/11 테러의 여파로 드러난 자발적인 추모, 즉흥적 추모의식, 공공 기념행사, 박애주의 현상 및 기타 지지연대 모임

- 그라운드 제로를 수습한 개인·집단의 성취를 연대순으로 정리한 WTC 부지의 평화와 재건 활동
- WTC 부지 재건을 계획·디자인하고 추진한, 적절하거나 논란이 되었던 과정
- 뉴욕, 미국, 세계의 1993년 및 2001년 테러에 대한 역사적 의의 (9/11 Memorial 2013, 3)

위의 도큐멘테이션 권고 사항은 2001년 9월 11일을 전후로, 과거의 WTC에서 테러 사건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그 속에서 발생한 모든 종류의 기록을 수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권고 사항에 덧붙여져, 기념관은 수집에 대한 한도를 다음과 같이 확장하였다.

- 1993년/2001년 테러 공격에서 기인한 수사, 재판과 법적 기소
- 1993년/2001년의 테러 공격을 받았거나 WTC 부지에서 질병 등을 얻은 피해자의 경험과 관련된 개인적인 이야기·이미지·박물
- American Airlines 77기와 United Airlines 93기의 납치, 펜타곤 테러, 펜실베이니아 상스빌 Flight 93기 추락사건 및 이에 동원된 조치
- 과거 WTC 부지를 신성시하려는 노력 및 WTC, 펜타곤, 상스빌 부지의 영구추모시설 설립과정과 결과
- 2001년 테러 공격으로부터 기인한 문제나 후속 조치에 기반을 둔 9/11 가족구성조직 및 기타 시민주도 비영리 조직 등 풀뿌리 시민 행동주의(activism)
- 9/11 테러의 초기대응과 복구 인력 분야에서 공공 보안, 대외정책, 시민자유권, 의무에 관한 국가적·세계적인 논쟁 및 9/11 테러와 관련된 현대 세계 이슈들의 진행 증거(9/11 Memorial 2013, 3-4)

자문위원회의 내용 기준에 따른 수집 범위는 시공간적 범위를 9/11 테러와 1993년 폭탄테러, 그라운드 제로를 비롯한 테러부지(site)로 한정했다. 반면 기념관에서 확장한 수집 범위에서는 9/11 테러가 하나의 사회현상이

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컬렉션 수집에 관한 시공간적 범위를 전 세계로 확장했다.

2) 9/11 메모리얼 컬렉션의 유형과 특징

컬렉션은 약 2,100여 건의 보존문서(archival documents), 현장에 남아 있던 최초 구조 차량과 강철구조물 같은 대형 박물을 포함한 1만여 건 이상의 박물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테러 역사와 관련된 사진, 음성 및 영상 자료, 개인 소지품과 수집품, 추모와 관련된 물품, 증언과 디지털 파일, 웹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약 3천여 명의 기증자가 기념관에 컬렉션을 기증했고, 2천여 명 이상 분량의 구술사가 채록되었다(9/11 Memorial 2016.02.18.).

9/11 메모리얼은 웹사이트에서 네 가지의 컬렉션을, 『컬렉션관리정책』에서는 다섯 가지의 컬렉션을 소개했다. 전자는 9/11 테러 사건의 시간적 전개에 따른 주제 분류이자 웹사이트에서의 컬렉션 서비스를 위한 것으로, 이용자들이 컬렉션을 쉽게 이해하도록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후자는 기록정보의 물리적 형태에 따른 분류로서, 관리적 측면에서 컬렉션 덩어리를 구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 주제 분류에 따른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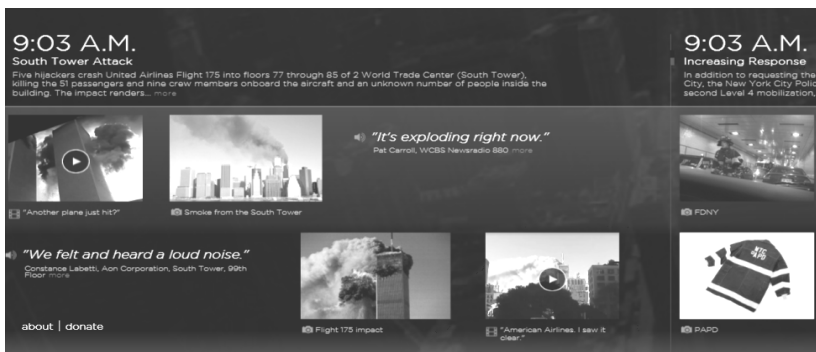
기념관이 보유하고 있는 컬렉션은 주제에 따라 ①The Original WTC, ②9/11: Events of the day, ③Rescue & Recovery, ④Oral Histories로 나뉜다. ①에서 ③까지는 9/11 테러가 일어나기 이전의 WTC로부터 사건의 시간적 흐름을 따라 주제별로 컬렉션을 나누는 것이다. ④Oral Histories는 시간 흐름에 따른 경험자의 기억과 증언을 한데 모아 놓은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The Original WTC는 2001년 9월 11일 이전 WTC 건물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이 기념관의 컬렉션 중 하나다. The Original WTC의 대표적인 아이템

으로는 WTC 프레젠테이션 모델이 있다. 1960년대 초 제작된 이 모델은 과거 WTC의 원래 모습을 재현해 그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미국건축재단이 9/11 메모리얼에 기증해 현재는 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다. 이 컬렉션을 수집하는 범위는 WTC 단지의 일상과 시스템까지 확장된다.

기념관의 두 번째 컬렉션인 9/11: Events of the day는 사건 당시를 설명하고 개인의 사건을 다룬 물품과 박물을 보유하고 있다. 2001년 9월 11일에 그라운드 제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이 기념관의 역할이 된다. 9/11 메모리얼 웹사이트에는 기록 콘텐츠인 인터랙티브 타임라인(Interactive Timelines)이 서비스되고 있다. 이 타임라인에서는 기념관이 보유한 구술 기록, 사진, 동영상, 신분증과 당시 비행 일정표 등 공·사문서 사본, 피해자의 유품 등 다양한 유형의 기록들을 배치해, 사건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 WTC 외의 테러 발생지역에서의 사건 경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그림 1>)(9/11 Memorial 2016.05.07.) 참조)

<그림 1> 9/11 인터랙티브 타임라인- September 11 Attack Timeline 중 일부



세 번째 컬렉션인 RESCUE & RECOVERY는 9/11 테러 직후 시작된 구조 및 복구 작업의 과정을 보여준다. 9/11 테러의 여파 속에서 구조인력과 함께 수천 명이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9개월의 시간 동안

사진, 동영상, 사적 문서 등 수많은 개인기록을 생산해 내었으며 복구 작업에서의 경험과 기억들을 축적했다. 9/11: Events of the day 컬렉션과 마찬가지로, 구조 및 복구 작업과정을 엮은 타임라인이 9/11 메모리얼 웹사이트에 게시되어 있다.

마지막 컬렉션은 Oral Histories로, 구술사 컬렉션은 여러 관점으로부터 구성된 인터뷰를 통해 9/11 테러에 얽힌 이야기를 다각적으로 보여준다. 구술사는 서면 자료들을 통해서 충분히 포착되지 않은 것들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9/11 Memorial 2016.03.16.). 구술대상에는 미션 2의 생존자와 조력자 등이 포함되며, 세부적으로는 유가족, 사건에 대한 최초 대응인력, 남부 맨해튼 주민, 복구 노동자, 생존자, 다른 구술사 기증자 및 9/11 이전 WTC에 대한 카테고리 구분된다.(〈표 2〉⁷⁾ 참고)

〈표 2〉 9/11 메모리얼 웹사이트 구술자 구분과 유형

Family Members	9/11
First Responders	() , , , , ,
Lower Manhattan Residents	()
Recovery Workers	, , , , , , ,
Survivors	9/11
Original World Trade Center	9/11 WTC ,
Other Oral History Contributors	

9/11 메모리얼의 구술자는 WTC 근무자나 9/11 테러 등에서 가족·친지·주변인을 잃은 사람들, 직접적인 피해자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구술

7) 〈표 2〉는 9/11 메모리얼 웹사이트 Oral Histories 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사를 통해 그들의 관점에서 서면으로는 충분히 포착할 수 없었던 사건의 전개과정을 보충, 확장해 나갈 수 있다.

(2) 형태 분류에 따른 컬렉션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 주제는 컬렉션 정책에 명시된 각 컬렉션의 물리적인 형태에 따라 크게 예술작품(Art), 웹사이트(Websites), 추모 기증품(Unsolicited tributes)⁸⁾, 구술사, 유해로 나뉜다.

9/11 테러 이후 수많은 예술작품이 창작되었고 이에 따라 기념관은 아티스트 레지스트리(Artists Registry) 플랜에 착수, 웹사이트를 통해 예술작품 컬렉션을 유지 및 전시하고 있다. 개인과 단체가 생산한 예술작품을 웹사이트에 자발적으로 게시하도록 설정해 놓았다. 단순히 전문가나 예술가뿐만 아니라 일련의 사건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목격자들이 창작한 예술작품 또한 수집 범위에 포함한다.

9/11 테러와 관련된 콘텐츠들은 언론과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생산·유통되었다. 9/11 메모리얼은 이러한 현상에 발맞춰 당시 생산된 관련 웹사이트들을 아카이빙하고 있다(9/11 Memorial 2013, 45). 웹사이트 아카이빙은 기념관 큐레이터가 선별한 사이트의 목록과 함께, 기술적으로 스냅샷을 캡처할 수 있는 프로세스인 크롤(crawls)을 통해 이루어진다. 획득된 전자문서는 국제 인증 표준포맷인 “.arc files”로 압축된다. 수집된 웹사이트들은 컬렉션 관리 소프트웨어 Collective Access(이하 CA)에 저장된다.

추모 기증품은 9/11 메모리얼의 수집 의도 없이 자발적으로 생산된 컬렉션으로, 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불특정 다수에 의해 생산된 기록물이다. 기념관의 큐레이터들은 여러 가지 유형의 기증품들을 검토하고, 부패하

8) Unsolicited tributes는 직역하면 “자발적인 혹은 요청되지 않은 헌사”로, 익명의 추모객들이 남긴 기증품이나 헌화 등으로 이해할 수 있다.

는 물건, 주류, 불법 물질, 대량생산된 상업적 물품 등에 피해자와 관련된 표식이 없으면 관리상의 이유로 폐기한다(9/11 Memorial 2013, 4-5).

구술사 컬렉션은 웹상 주제 분류와 형태 분류 모두에 속하는 컬렉션이다. WTC 부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고 내용적 측면에서 정보를 보강하기 위해 9/11 테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기억을 구술사로 수집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컬렉션은 유해이다. 9/11 테러 및 일련의 사건에서 사망한 희생자는 2,753명의 유해가 강한 폭발로 흩어지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9/11 메모리얼은 식별이 안 된 유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9/11 Memorial 2013, 7).

매뉴스크립트 특성상 재난기록은 다양한 생산자, 생산 시기, 매체, 유형 등을 가지고 있다. 이를 통일된 관리 프로세스로 다루기는 쉽지 않으며,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용이할 것이다. 한편 구술사는 형태와 주제별 분류 모두에 존재하는 유형으로, 사회재난 기록물을 수집하는 대표적 방법론으로 볼 수 있다. 구술사 컬렉션은 구술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재난 당시를 다각적으로 재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5.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 수집 활동

1) 수집 권한과 평가

9/11 메모리얼은 『컬렉션관리정책』에 수집정책을 비롯한 목적, 범위, 권한, 수집 및 등록절차 등을 수록해 기록관리 정책과 프로세스를 총체적으로 규정했다. 컬렉션에 대한 권한은 수석 큐레이터, 기념관 감독, 9/11 Memorial's Program Committee(이하 PC), 기념관 큐레이터와 역사가들에게 주어진다.

수석 큐레이터와 기념관 감독은 수집 범위, 여부, 주제(기준) 선정, 수집물에 대한 최종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다. PC는 컬렉션의 수집에 관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컬렉션 위원회가 설립되기 전까지 임시적 권한을 지닌다. 기념관 큐레이터와 역사가들은 전문가로서 기념관의 컬렉션에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권한을 갖는다.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에 대한 최종책임은 An International Acquisitions & Loans Committee(이하 ALC)의 회장직을 겸한 수석 큐레이터가 갖고 있으며, 컬렉션의 수집·구입·평가 등에서 최종 영향력을 행사한다. ALC는 장기계획을 잡고 선물, 구입 등의 방법 등으로 다른 수집물을 수집할지를 고려한다. 컬렉션 내의 수집물, 문서, 예술작품들에 대한 최종 접근 권한은 수석 큐레이터와 협의하여 기념관 감독이 책임지게 된다(9/11 Memorial 2013, 8).

9/11 메모리얼 이사진이 컬렉션 위원회를 상설 이사회로 지정하는 내규를 개정하기 전까지 PC는 임시로 수탁 단계의 컬렉션을 관리하는 위원회 기능을 맡는다. PC는 또한 기증, 매입, 이관, 의뢰를 통하여 컬렉션을 수집하기 위한 표준 및 전략 개발에 참여한다(9/11 Memorial 2013, 8).

기념관의 큐레이터나 역사가는 기념관 등록담당자에 의해 보증된 서류를 보유하고 있으면, 9/11 메모리얼의 이사회의 승인 없이도 컬렉션에 접근할 수 있다. 이는 전문가들이 컬렉션에 자유롭게 접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려는 방침이다.

〈표 3〉 직무/위원회 별 컬렉션 관련 권한

Chief Curator	*ALC
Museum Director	
9/11 Memorial's Program committee	
Curator/Historian	

재난기록의 평가 프로세스는 해당 아카이브가 표방하는 다양한 가치 기준을 적용해 수집한 컬렉션의 선별과정을 거치게 된다. 9/11 메모리얼은 수집된 컬렉션 아이টে에 대해 다음 네 가지 절차에 따라 평가 업무를 진행한다.

〈그림 2〉 9/11 메모리얼의 수집 컬렉션 평가 프로세스



평가 첫 단계는 수집할 컬렉션이 미션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컬렉션 아이টে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의 선별작업이자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나 미션 그 자체를 평가 지표로 삼기에는 광범위하고 애매하다. 따라서 세부적인 두 번째 평가 프로세스에서는 평가대상 기록물이 수집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4장 1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9/11 메모리얼이 수집하는 컬렉션의 범위는 9/11 테러 및 관련 사건들, 그라운드 제로 부지에 머무르지 않고 그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기록물을 아우르고 있다.

다음 단계로는 수집된 아이টে에 전시, 교육, 연구 및 학문, 추모 영역 중 하나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수집된 컬렉션의 분류와 활용을 염두에 둔 것으로, 교육적 활용가치를 지향하기 위해 제시된 기준이다.

평가 프로세스의 마지막 절차는 기증 또는 선물 및 기념관 구입 활동에서의 평가로 볼 수 있다. ALC는 이 과정에서 아이টে에의 이용가능성과 법적 상태를 확인하고 검토 계획을 세운다. 아이টে에를 구입하는 경우 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검토하고, 비슷한 아이টে에가 무료로 기증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고려 후 결정으로 평가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9/11 Memorial 2013, 10).

컬렉션에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수집된 매뉴스크립트 요소가 갖춰져 있으므로 9/11 메모리얼의 컬렉션 평가는 9/11 메모리얼이 중점적으로 다루는 주제 및 미션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다양한 방면에서 이용가능성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평가 중 하나다. 한편 다양한 생산자, 생산 시기, 보유자 등으로부터 수집되기 때문에, 기관 자체에서 생산한 기록들과 달리 개별 아이템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 등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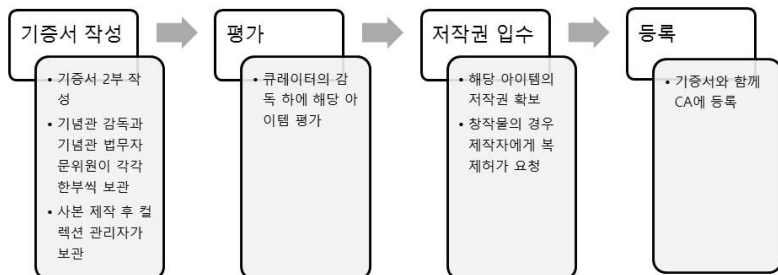
2) 컬렉션의 수집과 등록

(1) 컬렉션 수집절차

『컬렉션관리정책』에서는 수집의 의미를 “기념관 컬렉션을 구성하는 아이터మ్들은 개인, 조직, 단체, 기관으로부터의 주도적인 탐색과 아웃리치 활동 및 기부, 유산, 구매, 의뢰로 수집되며, 다른 박물관, 아카이브즈, 공공단체, 제후조직 및 추모공원이거나 기념관 등의 ‘현장’에서 옮겨지는 것”(9/11 Memorial 2013, 8)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9/11 메모리얼 컬렉션은 대부분 기증과 구입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인 기증절차는 기증서를 작성하고, 기록 전문가의 평가를 거친 후 저작권을 입수하고, 이후 디지털화된 기증서와 함께 CA에 등록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기증품이 기념관에 입수되면 소유자, 제작자 또는 소유자 대리인은 기증서를 작성하고, 기념관은 4주 이내에 이 기증서 검토를 완료해야 한다(9/11 Memorial 2016.06.11.). 기증자가 기증한 물품이 기념관의 수집정책 기준에 부합한다면, ALC는 큐레이터의 감독하에 해당 컬렉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프로세스에 따라 기증품이 평가되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대체로 9/11 메모리얼이 저작권을 입수하는 과정이다. 이때 기념관은 저작권 적용 범위 등을 포함한, 최대한 광범위한 권리를 입수한다.

〈그림 3〉 컬렉션 기증절차



기념관은 매년 PC와 다가올 회계연도 동안 구입할 수집물을 위한 예산 편성 과정과 재정지원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이후 재정·투자위원회(the Finance and Investment Committee)와 9/11 메모리얼 이사회를 거쳐 예산이 검토 및 승인된다. 한편 개별적인 컬렉션을 구입하기 위한 승인 시스템에서는 구입 금액에 따라 승인 결정 권한이 점차 확대된다(9/11 Memorial 2013, 11-12).

컬렉션 구입 시에는 해당 컬렉션 매각자에게 동의서 및 청구서를 작성하게 한다. 수석 큐레이터가 서명한 청구서와 함께 기념관이나 9/11 메모리얼의 권한이 있는 직원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이것은 해당 컬렉션이 이관되었음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문서가 된다. 이후 9/11 메모리얼 컬렉션 관리 소프트웨어인 CA에 디지털화된 관련 서류와 디지털 사본이 등록된다(9/11 Memorial 2013, 12).

〈표 4〉 컬렉션 구입 시 금액별 승인 결정 권한

()	
15,000	/
15,000 ~ 25,000	
25,000 ~ 50,000	9/11 CEO/
50,000	9/11 Memorial's Program Committee

(2) 컬렉션 등록절차

기증, 구입 등의 방법을 거쳐 수집된 컬렉션은 기념관의 기록관리 소프트웨어에 등록된다. 9/11 메모리얼의 등록목표는 첫째, 역사적 사건, 장소, 사람, 어떤 중요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것을 의미하는 객체(objects)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둘째, 객체 그 자체의 보존을 촉진하며, 셋째, 소유권, 보험, 특허권 협약 등과 관련된 객체에 관해 기념관의 권리를 수립하고 법적 문서를 보호하고, 넷째, 객체의 해석(이해)을 지원하고, 다섯째, 컬렉션 내 정확하고 세부적인 기술과 위치 지정을 통한 모든 객체의 식별과 설명을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9/11 Memorial 2013, 13).

9/11 메모리얼의 아이টে를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번호 매기기(numbering), 접근번호 배정, 사진 촬영, 기록물 배치 순서로 이루어진다. 수집된 물품, 문서 또는 이미지와 순차적이거나 관련 있는 자료들은 시스템상에서 자동으로 고유 입수번호를 부여받는다. 시스템상 번호 배정 외에도, 각 물품의 라벨 작업과 철 작업, 태깅(tagging) 등 물리적인 작업이 함께 이루어진다(9/11 Memorial 2013, 14-15).

등록이 진행되는 동안 물품들은 임시로 특정 장소 위치를 할당받는다. 컬렉션이 본격적으로 전시나 오프사이트 스토리지(off-site storage)에 배치된 후에 각 객체의 영구적인 위치가 기록된다. 일시적으로 다른 박물관 등에서 대여한 물품의 위치 또한 기념관의 컬렉션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다. 각 컬렉션 아이টে이 이동하게 되면 기념관 등록담당자에게 보고되며, 기념관 전자 컬렉션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즉각적으로 업데이트된다(9/11 Memorial 2013, 15).

(3) 컬렉션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CollectiveAccess

9/11 메모리얼의 기증이나 수집에 관한 업무는 메일과 웹사이트를 통해 디지털 형태로 진행된다. 9/11 메모리얼은 컬렉션의 전자적 관리를 위한 소

소프트웨어로 CA를 이용하고 있다. CA는 기록관, 박물관 및 특별 컬렉션의 관리 및 게시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기록관, 도서관, 비영리단체, 개인 수집가, 아티스트 스튜디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정지훈 2014, 150).

CA는 기념관의 컬렉션 관리 데이터베이스로서, 9/11 메모리얼이 수집한 컬렉션은 PDF 형식으로 변환되어 CA에 접근 기록으로 링크된다. 구술사의 경우, 컬렉션 관리자는 기록마다 접근번호를 배정한 후 PDF 포맷으로 사본을 만든다. PDF 사본은 CA의 접근 기록으로 링크되면서 간단한 기술항목과 함께 저장되는데, 입수되는 컬렉션 아이템에 대한 정보는 출처 및 맥락과 연관되어 물리적 기술(記述)과 함께 작성되며, 아이템의 디지털 이미지는 임시로 보존되기 위해서 고유번호를 배정받고 CA에 입력된다(9/11 Memorial 2013, 11).

CA는 데일리 백업(Daily back-ups) 기능을 이용해 기념관 컬렉션 데이터를 구성하며, 기념관의 전자 데이터의 정기 백업을 통해 비상사태가 생기는 경우 다른 지역에서 접근과 복제를 가능케 하도록 안전계획을 수립해 두었다. 특히 종이 문서는 PDF 포맷으로 변환 후 CA에 등록해 컬렉션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3) 이용자 중심 수집을 위한 온라인 레지스트리

관련 기록의 수집을 포함한 정보 서비스를 시공간적 제약이 자유로운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것이 온라인 레지스트리의 특징이다. 이것은 문화예술 아카이브 등의 웹 4.0을 기반으로 한 수집전략과도 유사하나, 불특정 다수가 생산한 기록물로 수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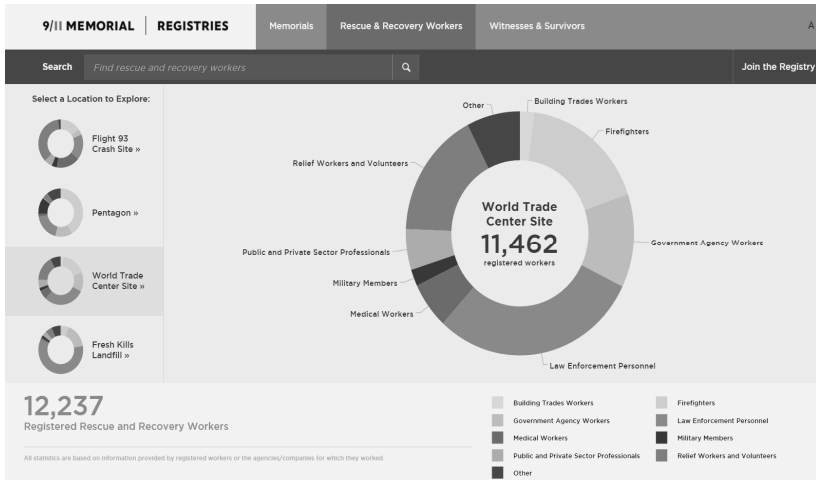
메모리얼 레지스트리와 아티스트 레지스트리는 일종의 사용자 참여형 아카이브로서, 웹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한 누구라도 9/11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이나 작품을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아카이빙 서비스이다. 즉 다른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수집 및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기록의 수집 주체가 기념관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적 아카이브의 성격을 갖고 있다.

9/11 메모리얼 레지스트리는 총 세 파트로 나뉜다. 첫 번째 메모리얼 레지스트리(Memorial Registry)에는 생존, 복구, 추모와 관련된 역사적 기록이 존재한다. 메모리얼 레지스트리는 전 세계를 아울러 9/11 테러와 관련된 컬렉션을 수집하며 불특정 다수가 테러에 대한 기억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9/11 Memorial 2016.05.07.).

두 번째 섹션인 구조 및 복구 인력 레지스트리(The Rescue and Recovery Workers Registry)는 9/11 이후 뉴욕시, 알링턴, 버지니아, 펜실베이니아 서머셋 카운티 지역의 구조, 복구, 수사, 정화, 구호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을 기록한 레지스트리이다. 이 레지스트리는 각 4개 지역에서 활동한 건축가, 소방관, 정부요원, 법률 집행 요원, 의료 인력, 군사 인력, 공공·민간영역 전문가, 구조대원·자원봉사자,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해당 활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수를 원형 그래프 인포그래픽으로 보여 준다.(9/11 Memorial 2015.05.07.)(〈그림 4〉 참조)

〈그림 4〉 구조 및 복구 인력 레지스트리 중 WTC 인력 현황 화면



목격자·생존자 레지스트리(The Witnesses and Survivors Registry)는 직간접적 피해자가 직접 생산한 레지스트리이다. 구조 및 복구 인력 레지스트리와 마찬가지로 이 섹션 역시 WTC, 펜타곤, 1993년 WTC 폭탄테러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작성해 두고 있다. 9/11 테러 당시 남부 맨해튼 지역의 구조 현황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해당 생존자 인원을 클릭하면 세부 인적사항을 알 수 있다.

한편, 4장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술작품을 수집함과 동시에 서비스하기 위해, 예술가가 9/11 테러 등과 관련된 자신의 작품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레지스트리가 운영되고 있다.

기념관은 아티스트 레지스트리 등록담당자들에게 그들의 작품을 온라인에 전시하기 위한 라이선스를 제공한다. 개인이 아티스트 레지스트리에 파일을 게시하려면 작품에 관한 기술요소, 창작자 개요(bio-resume), 연락처를 작성하고 이후 디지털 이미지, 비디오 파일, 오디오 파일, 서술형식의 작품을 게시할 수 있다. 유튜브 등 비디오 공유 사이트의 게시물을 임베드 코딩(Embed coding)을 통해 게시한다. 아티스트 레지스트리는 포트폴리오와 작가들이 올린 정보 열람서비스, SNS·블로그와의 공유, 즐겨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9/11이라는 세계적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기억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레지스트리 서비스는 참여형 아카이브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술요소가 일반적인 기록관리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적어 충분한 정보 획득이 부족하다는 점, 기술 자체가 비전문적이기 때문에 관련 정보 검색 시 정확한 내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점, 불특정 다수가 컬렉션을 등록할 수 있으므로 진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장치가 미흡한 점이 한계로 남았다.

6. 9/11 메모리얼 설립과 수집에서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과 재난기록 수집 활동은 사회재난을 처리하고 극복할 때 기록학적 관점에서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할지를 보여준다. 사회재난으로 인해 해당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민들은 향후 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며, 여론은 각종 이해관계,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여론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마련하여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난기록관리는 추모, 기억 보전, 교육, 학제적 정보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함께 논의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에서의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남부 맨해튼 재건사업 주체는 WTC 부지의 이용방안부터 기념공원과 기념관을 어떻게 설립할지에 대한 논의를 뉴욕 시민에게 요청했다. 공공기관인 뉴욕 뉴저지 항만청과 공사인 LMDC는 공청회를 주최하고 후원했다. 재난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에서 해당 정부조직이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결과 현재의 9/11 메모리얼은 추모 시설이자 맨해튼의 도시공원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 프로그램과 공공토론 프로그램을 통해 향후 미국사회의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한편 2016년 2월 9/11 Memorial Act가 제정됨으로써 9/11 메모리얼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법률적으로 보장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9/11 메모리얼의 설립과정과 법률 제정, 기록수집 활동을 통해 국내 사회재난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다음의 결론을 도출해 내

9) 사회재난 아카이브는 재난 희생자를 추모하는 동시에, 교육을 통한 재난예방을 목표로 해야 한다. 재난기록물 관리기관 설립을 기획할 때부터 다양한 시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야 하고 개방된 장소를 통해 재난기록에 대한 적극적 서비스와 교육적 활용을 위한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었다. 첫째, 공청회 등 시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정부 주도적인 ‘전문가 발표-청중 질의응답’ 구조를 벗어난 ‘안건 및 자료제시-시민토론-의견 도출과 수렴’ 과정이 적절할 것이다. 대규모 이슈로서 긴 기간이 예상되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은 필수적이다. 사회재난 아카이브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기록서비스를 통해 안전사회를 지향할 공간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 재난기록관리기관은 추모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시민에게 공개된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재난 사후 추모시설에 대한 건축적 구조를 기념비-기념관-기념공원 구도로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다.¹⁰⁾ 이 구조는 자칫 추모시설을 하나의 고립된 성역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재난기록관리기관은 추모시설인 동시에 개방된 장소로서 시민들에게 사회재난에 대한 예방교육과 기록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셋째, 재난기록관리기관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수많은 사회재난에 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재난기록관리기관에 대한 설립이나 기관 운영의 문제는 법률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자치법규나 제한적 범위의 운영세칙이 아닌 법률 수준의 규정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정기적인 예산편성이나 국립기관 지정과 같은 법적 근거를 통해 기관의 존속을 보장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기록물의 물리적인 수집을 넘어 모든 공동체의 기억을 수집하고 기록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시적인 물리적 기록과 더불어서,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재난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으므로 이들의 시각이 반영된

10) 518 기념공원, 국립현충원 등 우리나라의 추모시설은 기념비-기념관-기념공원 구도로 이루어진 경향이 있다. 그 사례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제4장 제38조에 따라 추모시설을 추모비·추모기념관·추모공원을 추모시설이라고 규정하였다.

기역을 다각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여기서 시공간적 접근성이 뛰어난 웹 아카이브를 활용하여 다양한 민간영역에서 기록물을 수집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기록물을 서비스하는 기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만 사회재난 기록물의 특성과 기관 설립 환경에 있어서 9/11 메모리얼과 국내 사회재난 사례의 차이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9/11 테러는 무장 세력에 의한 테러라는 점에서, 고착된 관습으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국내 사회재난과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기록물이 우선순위에 놓여있고, 사회재난의 원인과 위험성, 안전문제에 관한 맥락을 갖고 있다. 또한, 남부 맨해튼 부지의 소유권과 각종 재정적 이슈 등 민간영역에서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기 때문에 9/11 메모리얼 설립 시 다양한 설립 주체가 개최한 시민여론 수렴의 장이 적극적으로 마련된 반면, 국내 사회재난의 경우 정부주도적인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므로 아카이브 설립에 있어서 민간영역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7. 맺음말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대규모 사회적 참사에 대한 기록물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9/11 메모리얼은 우리나라 사회재난 아카이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9/11 메모리얼은 민주적 의사결정과 법 제정을 통해 기관의 사회적·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웹 영역에서 시민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각도로 사회재난 기록물을 확보했다. 이 기록물은 콘텐츠화, 전시, 교육, 학제적 자료로 적극 활용됨으로써, 재난기록을 통한 기록관리 분야 거버넌스를 확립할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사점은 사회재난 기록물을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구도완 외 7. 2003. 한국사회의 위험과 안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승범. 2012. 공공건축물 생산과정에서 토론장과 작업장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 김진성. 2015. 세월호 참사에 관한 기록정보관리 분야의 사회적 역할. 『기록학연구』 44.
- 박진빈. 2008. 9/11 기억의 터: 미국 예외주의 트라우마. 『사회와 역사』 78.
- 설문원, 최이랑, 김슬기. 2015. 오픈소스를 활용한 사건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 사건을 사례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4.
- 송주형. 2015. 기술을 통한 재난 사고의 기록화: 세월호 참사 관련 기술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44.
- 안병우. 2015. 세월호 사건 기록화의 과정과 의의. 『기록학연구』 44.
- 오국성. 2012. 한국의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 일본의 재난관리체계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소방방재학과.
- 이미옥. 2014. 대구지하철화재참사 기록의 단계별 관리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기록학과.
- 이재열. 2005. 한국사회의 위험구조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장경섭. 1997. 복합위험사회의 안전문제. 『녹색평론』 33.
- 장래준. 2002.9.10. 월드 트레이드센터 재개발 방안. 한국일보(The Korean Times).
- 정영란. 2003. 홀로코스트기념관을 통해본 주제기록관에 관한 연구 - '집합적기억'의 수집과 수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지훈. 2014. 기록관리 대중화를 위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제6회 전국기록인대회 발표자료집.
- 전미희. 2006. 현대의 사회재난에 대한 연구: 자연재난, 인위재난에서 사회재난으로. 석사학위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 홍영의. 2015. 4·16 참사 기억·기록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 2014년 '세월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한국학논총』 43.
-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 2002. LISTENING TO THE CITY-REPORT OF PROCEEDINGS. NYC: Civic Alliance to Rebuild Downtown New York.

- Cook, Michael. 1999. Emergency Planning for Records and Archival Services. London: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하종희 역. 2002. 『기록관리 비상계획』. 서울: 진리탐구).
- Hajer, Maarten A. 2005. Rebuilding Ground Zero. The Politics of Performance. Planning Theory & Practice, 6(4).
- Imagine New York. 2003. IMAGINE NEW YORK Toward the People's Memorial Summary Report. NYC: A project of the Municipal Art Society of New York.
- Jimerson, R. C. 2009. 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역. 『기록의 힘: 기억, 설명책임성, 사회정의』.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Wyatt, Edward. 2002.5.26. At Hearing, A Resolve To Rebuild Twin Towers. The New York Times.
- 9/11 Memorial. 2013. Collections Management Policy. New York: 9/11 Memorial.

〈참고 사이트〉

- CollectiveAccess <http://www.collectiveaccess.org/>
- Explore 9/11 mobile application
- Foundation Group <https://www.501c3.org/>
- House Republicans <http://www.gop.gov/>
- Lower Manhattan Development Corporation(LMDC) <http://www.renewnyc.com/>
- Port Authority of New York & New Jersey(PANYNJ) <http://www.panynj.gov/>
- 9/11 Memorial <https://www.911memorial.org/>

